순창 유기농산업복합센터 내년초 착공

180억 들여 투자선도지구에
전시·판매·체험시설 등 조성
관광명소화 모색 실무회의

순창군이 역점사업으로 추진 중인 '유기농산업복합센터 조성'〈조감도〉 관련 실무회의를 갖고 관광명소화 사업에 나섰다.

순창군은 지난 18일 농업기술센터에서 유기농산업복합센터 조성 3차 실무협의회를 열어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제시된 기본 콘셉트와 주요시설 등을 담은 실시설계 내용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실무위원들은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자유토론을 진행했다.

실무위원들은 유기농산업복합센터를 많은 사람들이 찾고 타 시도와 차별화되며 지역 랜드마크가 될 멋진 시설로 조성해 줄 것을 주문했다.

유기농산업복합센터 조성은 2023년까지 180억원을 투입, 투자선도지구 1만3152㎡ 부지에 유기농산업 관련 홍보판매시설과 가공시설, 체험전시시설, 소비시설 등을 꾸미는 사업이다.

세부 시설로는 유기가공식품판매장, 유기농부마켓, 유기식품공방, 친환경공공급식지원센터, 곤충사이언스관, 유기농레스토랑, 유기농체험관, 아티스트카페 등이 들어선다.

유기가공식품판매장에는 전국에서 생산·유통되는 유기가공식품 7300여 제품이 전시·판매되며, 유기농부마켓은 지역에서 생산되는 유기농산물의 판매공간으로 활용된다.

곤충사이언스관은 장수풍뎅이, 사슴벌레를 만지고 체험하는 어린이 학습공간이다.

유기농체험관은 유기농을 소재로 한 가상체험관(VR관)을 통해 상추, 블루베리 등을 직접 심고 키울 수 있도록 채소화분만들기 체험을 할 수 있고, 아티스트 카페는 지역 예술인들의 창작과 작품전시, 공연 등의 공간으로 활용된다.

순창군은 내년 3월 착공을 목표로 마지막 행정절차 이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황숙주 순창군수는 "순창군 친환경농업인 역량강화와 유기농 인증면적 확대를 통해 유기농업을 활성화하겠다"면서 "순창군유기농산업복합센터를 많은 관광객이 찾을 수 있는 관광 명소로 개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순창=장양근 기자 jyg@kwangju.co.kr

"인생 2막 시작하세요"… 남원시, 퇴직 전문인력 활용 일자리 사업

20개 분야 66명 신중년 선발

남원시의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의 하나인 생활안전 닥터 활동 모습. 〈남원시 제공〉

남원시가 퇴직한 전문인력을 모집해 시민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을 내년에 20개 분야에 걸쳐 추진한다.

사업 분야는 가가호호 생활안전 닥터, 한옥 관리 매니저, 미꾸리 척척박사, 작은 도서관 북 코디 등이다.

생활안전 닥터는 퇴직한 전문가들이 저소득층 가정을 찾아가 소방, 전기, 수도 등을 점검해주는 것이며 한옥 관리 매니저는 함파우 소리체험관 등의 한옥을 유지·보수하는 것이다.

미꾸리 척척박사는 미꾸리 양식 농가에 사육 기술 등을 전해주는 역할을 한다.

이 사업은 퇴직한 신중년의 전문성을 활용해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고용노동부 공모에 선정돼 추진된다.

총 66명의 신중년을 선발하며 국비 7억5000만원 등 총 15억원이 투입된다.

안순엽 남원시 일자리경제과장은 "그동안 쌓은 전문성과 경력을 활용해 인생 2막을 시작하고, 지역사회에도 이바지하는 신중년의 새로운 도전을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정부 일자리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군산시, 공공시설 피해 배상 보험 가입

지난달까지 1843건 시설물 등록
대인 5억원·대물 100억까지 배상

군산시가 시민이 시설물로 인해 상해를 입거나 재산 피해를 입었을 경우 이를 보상해주는 '영조물(공공시설) 배상 공제보험'에 가입해 운영하고 있다.

영조물 배상 공제보험은 시가 소유·사용·관리하는 청사와 도서관, 공연장, 공원, 도로, 체육시설 등의 시설물로 인해 시민의 신체 또는 재물을 훼손시켜 법률상 배상책임이 발생했을 때 손해보험사를 통해 배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피해가 발생할 경우 해당 시설물 관리부서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보험가입기관인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접수해 전문 손해보험사를 통해 사고처리 후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시는 지난달 말 현재 영조물배상 공제(보험)에 1843건의 시설물이 등록돼 있으며, 연초 정기등록과 요인 발생 시 수시로 가입하고 있다.

배상 한도액은 대상 시설별로 설정돼 대인의 경우 1건의 사고 당 최대 100억원, 1인당 최대 5억원까지, 대물의 경우 1건당 최대 100억원까지 배상받을 수 있다.

군산시 관계자는 "영조물배상 공제를 통해 예측하지 못한 손해 대비 배상서비스를 제공하고 시민의 경제적 부담 감소와 시민 대상 혜택 증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군산=박금석 기자 nogusu@kwangju.co.kr

고창군 고추 수매장려금…수급 안정 지원

5000kg당 100만원 까지 지급

고창군이 고추 수급 안정과 수매 활성화를 위해 (주)고창황토배기유통, 해리농협에서 사전 계약재배를 체결해 수매한 홍고추〈사진〉에 대해 수매장려금을 지급한다.

고창군은 고추산업 육성을 위해 (사)고창고추연합회를 중심으로 내병계 종자지원과 건고추 장터 운영, '높을고창' 고추 브랜드 마케팅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올해 고창군 고추 재배면적은 3183농가, 753ha로 내병계 고추종자 보급 후 수확량이 전년대비 30%정도 늘고, 홍고추 수매량이 2배 증가했다.

군은 올해 6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홍고추 300t을 수매하고 관내 홍고추 수매기관인 ㈜고창황토배기유통, 해리농협과 사전 계약재배를 체결한 농업인들에게 경영체 당 5000kg, 100만원 상한선을 지정 지급할 예정이다.

특히 군은 내년에도 홍고추를 수매해 '높을고창' 고추가 소비자들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예산을 확대해 수매장려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조우현 고창군 원예특장팀장은 "수매장려금이 고창 고품질 고추 재배 농가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라며, 농가 소득 안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정읍시 다문화 가정 아동 언어발달 지원사업

12세 이하 2년까지 무료교육
주1~2회 1대 1 개별·모둠 수업

정읍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언어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문화가정 아동 언어발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언어발달지원사업은 다문화가정 아동을 대상으로 적절한 교육을 통해 일상생활이나 학교생활에서 원만한 발달이 이뤄지도록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만 12세 이하(초등학교 6학년까지) 다문화가정 아동의 언어발달 상태를 평가하고 교육이 필요한 자녀에 대해서는 최대 2년까지 무료로 교육을 지원한다.

프로그램은 언어발달 상태를 평가한 후 주1~2회 1대 1 개별수업과 2인 이상 모둠수업으로 진행된다.

수업내용은 어휘, 구문, 읽기, 쓰기, 조음 등 다양한 언어영역에서의 발달 촉진을 목표로 한다.

또 대상 아동과 부모 간 공감대를 형성하고 가정에서의 올바른 언어발달을 지원하기 위한 부모 상담과 교육도 함께 진행한다.

신청은 정읍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063-531-0309)로 문의하면 된다.

유진섭 정읍시장은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정착 지원뿐 아니라 다문화 가구 자녀들의 언어발달과 올바른 성장에도 힘써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익산시 음식점 칸막이 등 시설개선비 지원

업소당 최대 700만원까지
22일까지 시 위생과에 신청

익산시가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비말 차단 칸막이 등 음식점 시설개선비를 지원한다.

시설 개선 대상은 비말 차단 칸막이를 비롯해 주방, 화장실 등 위생 관련 시설이다.

지원 규모는 영업장 환경 개선 분야는 업소당 700만원, 입식 테이블 교체는 300만원 이내며 자부담은 각각 30%다

주민등록이 익산시로 등록된 6개월 이상 영업자로 최근 1년 이내 식품위생법 위반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자가 지원 대상이며, 지방세 체납업소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오는 22일까지 익산공설운동장에 있는 위생과에 관련 서류를 내면 현장 조사를 통해 대상업소를 선정할 계획이다.

익산시 관계자는 "비용 부담으로 낡은 시설을 개선하지 못하거나 코로나19 예방용 비말 차단 칸막이를 아직 설치하지 못한 소규모 업소를 지원하기 위한 것인 만큼 적극적으로 신청해달라"고 말했다.

/익산=유정영 기자 yjy@kwangju.co.kr